

한국어 청취 판별 검사

이 현 복 · 김 선 희

<차 례>

머리말	4. 검사 방법
1. 청취 판별 검사의 목적	5. 검사 기록 및 결과 처리
2. 검사표의 구성	맺음말
3. 최소 대립어의 구성	

<Abstract>

Korean Auditory Discrimination Test

Hyun Bok Lee & Sun Hee Kim

Auditory discrimination which represents a very basic and important perceptual skill in children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effective learning. It is necessary, therefore, to devise a standardized test tool for a reliable assessment of the auditory discrimination ability of children. The Korean Auditory Discrimination Test(KADT) is a tentative test tool that the authors have devised to meet such demand, i.e., to test the auditory discrimination ability of Korean children, both normal and hearing- and speech-impaired, between the ages of 4 and 8. The KADT consists of 40 pairs of words arranged in a systematic manner, of which thirty are "minimal pairs" of words and the rest homophonous synonyms. The 30 minimal pairs are composed in such a way that major phonological contrasts involving consonants and vowels at initial, medial and final positions are duly represented. The test score will be determined by the number of right responses made by the children. Further attempts will be made to refine and improve KADT in future.

머리말

한국어 청취 판별 검사는 한국인 청각장애아와 발음장애아를 대상으로 말소리의 청취 판별 능력을 검사하기 위한 도구로 마련하였다. 청각장애아와 발음장애아의 청취 판별 능력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적절한 검사 도구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검사 도구는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사용하기 쉽고 간편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는 아직 이러한 조건을 갖춘 표준화된 검사 도구가 없어서 제각기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 쓰고 있으므로 통일성이 없고 객관적인 기준을 세우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표준화된 한국어 청취 판별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우선 이 검사표를 시안으로 발표한다. 이 검사표를 고안하는 과정에서 Joseph M. Wepman 박사의 영어용 Auditory Discrimination Test(1973 개정판)를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끝으로 이 시안의 자료 처리를 도와 준 서울대 언어학과의 대학원생 김효숙, 송윤경, 공정혜 양과 언어학과의 이성은, 류희관 양, 그리고 검사표 양식을 만드는데 도움을 준 조흠난 씨에게도 고마운 뜻을 표한다.

1. 청취 판별 검사의 목적

인간의 언어는 말소리를 매체로 하여 이루어지며 운용된다. 정상인들은 바로 말소리에 뜻을 실어 전달하며 듣는 사람은 귀로 말소리를 듣고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의 말소리 판별 능력은 언어 능력과 조음 능력의 발달과도 관련이 깊은 중요한 인지 능력이다. 청각판별능력은 청각 기억 등과 함께 언어 및 청각 발달의 중요한 지표로 인식할 수 있으며 동시에 아동의 학습 성취도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하면, 청각 자극을 잘못 인식하면 효과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청각 판별 능력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각 장애아는 말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그 만큼 언어생활에 지장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것은 청각장애아들의 말소리 청취 판별 능력은 아동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상인의 청취 판단 능력에 비해 과연 어느 정도의 장애가 있는가를 정밀하게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정밀한 측정 결과는 치료사나 교육담당자에게 제공되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정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측정 결과를 확보하려면 우선 훌륭한 청취 판별 검사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어 청취 판별 검사표

Korean Auditory Discrimination Test

성명: _____ 성별: _____ 검사일: _____
 학교: _____ 학년: _____ 생년월일: _____

검사 낱말	다름	같음	검사 낱말	다름	같음
1. 딸 -- 쌀	다	같	21. 발 -- 팔	다	같
2. 큰 -- 끈	다	같	22. 덕 -- 독	다	같
3. 종 -- 총	다	같	23. 까기--깎이	다	같
4. 개 -- 개	다	같	24. 감 -- 곱	다	같
5. 맛 -- 만	다	같	25. 활 -- 활	다	같
6. 논 -- 논	다	같	26. 고리--꼬리	다	같
7. 달 -- 딸	다	같	27. 씨 -- 씨	다	같
8. 비 -- 베	다	같	28. 덕 -- 톱	다	같
9. 멋 -- 멋	다	같	29. 꿀 -- 꿀	다	같
10. 봄 -- 몸	다	같	30. 참 -- 째	다	같
11. 팔 -- 팔	다	같	31. 고장--교장	다	같
12. 털 -- 틀	다	같	32. 불 -- 뿔	다	같
13. 마리--마디	다	같	33. 자 -- 짜	다	같
14. 들 -- 들	다	같	34. 산 -- 삼	다	같
15. 공 -- 공	다	같	35. 칼 -- 팔	다	같
16. 기 -- 귀	다	같	36. 용 -- 용	다	같
17. 말 -- 맛	다	같	37. 막다--맛다	다	같
18. 춤 -- 춤	다	같	38. 담 -- 담	다	같
19. 날 -- 말	다	같	39. 굴 -- 굴	다	같
20. 높다--늑다	다	같	40. 살 -- 쌀	다	같

2. 검사표의 구성

이 청취 판별 검사표는 만 4세에서 8세까지의 청각 장애아와 발음 장애를 대상으로 청취 판별 능력을 검사할 수 있는 검사 도구로 마련하였다. 이 검사 표는 모두 40개 항목의 낱말 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용된 낱말은 대부분 1음절로 구성되어 있으나 필요에 따라 2 음절 낱말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사용된 낱말은 우선 빈도 수가 높아서 일상 널리 쓰이고 있고 어린이가 이해하는 데워 어려움이 없는 낱말 가운데서 선택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전체 40개의 항목 중에서 30 항은 각각 한 음소에서만 차이가 나는 낱말 짝, 즉 최소대립어(minimal pairs) 들이다. 보기를 들면, “발 - 달”은 첫 소리에서 차이가 나는 낱말 짝이고 “달 - 돌”은 모음에서 차이가 나는 낱말 짝이며 “박 - 발”은 끝 자음에서 차이가 나는 낱말 짝이다.

그러나 나머지 10개의 낱말 짝은 어느 음소에서든 차이가 나지 않는 완전한 동음 동의어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초성의 자음은 차이가 없이 완전히 동일한 낱말로 이루어진 10개의 낱말 짝을 포함시킨 것은 검사의 다양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모두가 최소대립어일 경우에 비해, “팔 - 팔”, “눈 - 눈”, “씨 - 씨”, “용 - 용”와 같이 동음 낱말 짝을 포함시키면 피조사자에게 그만큼 주의와 정확성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40개의 최소 대립어와 10개의 동음 낱말 짝은 유사한 항목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적절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10개의 동음 낱말 짝은 40개의 최소대립어중에 섞여서 나오도록 배열이 되어 있다.

3. 최소 대립어의 구성

이 청취판별검사표에서 사용된 최소대립어는 다음과 같은 음성학 및 음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1) 초성, 중성, 종성에서 나타나는 한국어의 중요한 음운 대립은 모두 포함되도록 노력하였다. 이 같은 음운 대립을 바로 듣고 판별하지 못하면 최소대립어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언어생활에 심각한 지장이 있음을 뜻한다.

2) 조음의 위치가 같은 초성 자음으로 조음 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소리들을

쌍으로 엮었다.

보기) 발 - 팔, 달-딸, 불-뿔

3) 조음의 위치가 같은 초성 자음으로 조음 방법이 상당히 다른 소리들도 짝으로 엮었다.

보기) 딸-쌀, 봄-몸,

4) 조음의 방법이 같되 조음 위치가 다른 초성 자음들도 짝으로 엮었다.

보기) 발-칼, 칼-팔,

5) 종성으로 나는 자음도 짝으로 묶어 최소대립어를 꾸몄다.

보기) 맛-만, 산-삼, 막다-맛다

6) 유성 환경에서 나는 자음도 자료에 반영하였다.

보기) 까기-깎이

7) 혀의 높이가 비슷한 인접 모음도 최소 대립 어로 묶었다.

보기) 시력-세력, 개-개, 털-들,

8) 평순 모음과 원순모음을 짝으로 묶었다.

보기) 들-들, 덕-독

9) 단순 모음과 이중모음을 짝으로 묶었다.

보기) 고장-교장, 굴-굴,

10) 음성학적으로 소리의 바탕이 너무나 달라 혼동의 염려가 없는 소리는 짝짓기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보기) 이-아, 아-우, 바-하, 사-빠

11) 소리의 길이가 우리말에서 음운론적인 기능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긴 하나 이 검사 도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우선 분절음에 더 큰 비중을 두기 위해서이다.

4. 검사 방법

이 도구를 이용한 청취 판별 검사는 발음되는 각 낱말 쌍을 듣고 긍정 또는 부정 하는 반응을 살피는 것이다. 즉, 아동은 검사자가 낱말 짝을 순서대로 읽어 줄 때 잘 듣고 각 낱말 짝이 같은지(동일한 낱말이 반복되었는지) 아니면 다른지(두 개의 다른 낱말이 제시되었는지)를 결정하여 반응을 보이도록 한다. 이에 대한 아동의 반응은 “네” 나 “같아요” 또는 “아나요” 나 “달라요” 라고 말로 나타날 수도 있고, 행동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행동으로 보이는 반응은 가령 머리를 끄덕인다거나 손으

로 표시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실제 검사를 하기 전에 어린이에게 미리 연습을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검사자가 어린이를 마주보고 이제부터 내가 말하는 두 낱말이 똑 같은 낱말인지 아니면 다른 말인가를 판단하여 답하도록 설명한다. 그리하여 “말 - 말” 을 들려 주어 어린이가 “네, 같아요” 라고 답하면, “맞았다” 또는 “그렇다” 라고 대꾸를 한다. 다음에 “해 - 배” 를 듣고 어린이가 “아니요, 달라요” 라고 반응을 보이면 어린이가 검사 방법을 이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틀린 반응이 나올 때에는 검사자는 어린이가 검사 방법을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적절한 보기를 활용하여 (보기: 발-발, 손-손, 발-달, 문-눈) 연습을 시킨다.

어린이가 검사 방법을 완전히 이해하면 드디어 검사표를 이용하여 실제 검사에 들어간다. 이제 검사를 받는 어린이는 뒤로 돌아 앉아 검사자에게 등을 향하게 하고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를 받는 어린이는 검사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 검사자가 참여하여 그러한 동작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5. 검사 기록 및 결과 처리

어린이의 반응에 따라 검사자는 검사표의 해당란에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다. “같다” 라고 하면 “같음” 난에 “다르다” 고 하면 “다름” 난에 표시를 한후 집계를 하게 된다.

채점은 1번부터 40번까지의 사선이 없는 항에 동그라미 표시된 것 만을 대상으로 한다. 사선이 있는 항의 결과는 집계 대상에서 제외한다.

검사의 타당성은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1) “다름” 난의 사선이 없는 항에 표시된 동그라미 수를 집계한다. 만일 그 수가 9개 미만이면 검사는 타당성을 상실한다.

2) “같음” 난의 사선이 없는 항에 표시된 동그라미 수를 집계한다. 만일 그 수가 6개 미만이면 검사는 역시 타당성을 상실한다.

이 두 가지 조건중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검사는 타당성이 없다.

검사 결과의 총점은 “다름” 난의 사선이 없는 항에 표시된 동그라미 수만을 집계하여 나타낼 수 있다.

맺음말

이 청각 판별 검사표는 한국어에서 쓰이는 모든 홀소리와 닿소리 음소를 대상으로 청취 판별 능력을 검사하기 위한 기본 도구로 고안한 것이다. 이 조사표는 시안이니 만큼 앞으로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미비 점을 보완하여 더욱 완전한 검사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계속 수정 보완하려 한다.

또한 이러한 검사 도구가 더욱 유효 적절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먼저 청각 장애가 없는 정상아들을 대상으로 청취 판별 조사가 수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정상적인 한국 아동의 청취 판별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연령별, 성별, 학력별, 지역별 등의 척도에 따른 기준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준치에 장애아의 검사 결과를 비교할 때에만 정확한 청각 판별 능력을 측정하고 그 정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치가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되어 발표된 바가 없는 듯하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연구가 하루 속히 진행되고 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 그러한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한국어 청취 판별 검사표와 연계되어 사용되면 한국어 청취 판별 검사는 청력과 언어 치료 및 이의 관련 분야뿐만 아니라 심리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참고 문헌>

- 김 방한, 이현복 외 공저(1983), 언어학개설, 형설출판사.
 김 선미(1996), “청각장애아의 말소리에 관한 음성학적 연구”, 음성학과 언어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 선희(1976), 정상아와 지진아의 언어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 선희(1996), “어린이 발음에 관한 연구”, 음성학과 언어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 영명 외(1978), “어음 청력검사 방법과 한국어음청력표에 관한 연구”, 대한이비인후과학회지 제21권 4호.

- 김 영옥(1984), 한국어 음소의 구형 변별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 석사학위논문.
- 김 홍규(1992), 청각장애아동의 어음변별력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 석사학위논문.
- 김 희남(1979), 한국어 어음에 관한 음성언어의 의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박사학위 논문.
- 심 윤주(1992), 인공와우가 청각장애인의 어음변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이 현복(1982), 실용영어음성학, 탐구당.
- 이 현복, 김기섭(1982), 음운학 개설, 탐구당.
- 이 현복(1982), 음성학 -이론과 실제-, 탐구당.
- 이 현복(1982), 국제음성문자와 한글음성문자, 과학사.
- 이 현복(1989), 우리말의 표준발음, 탐구당.
- 이 현복(1989), 한국어의 표준발음, 교육과학사.
- 이 현복, 김선희(1991), 한국어 발음검사, 서울국제출판사.
- 이 현복, 김 선희, 김영태(1995), 어린이 발음의 진단과 치료, 교육과학사.
- 최 성규(1996), 한국표준어음검사, 도서출판 특수교육.
- 최 참도(1985), “청각장애아의 어음변별력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함 기선, 표진이, 김선희(1976), 언어장애아 발음검사표, 한국산업훈련협회.
- 허 웅(1983), 국어음운학, 샘출판사.
- Reynolds, W.M.(1986), Wepman's Auditory Discrimination Test Manual. 2nd ed.
- Lee, H.B.(1983), Korean Phonetics, Korea Journal Vol. 27 No. 2 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 Lee, H.B.(1989), Korean Grammar, Oxford University Press.
- Wepman, J.M.(1973), Auditory Discrimination Test, revised 1973, Western Psychological Service.
- Sheiberg, Lawrence D., and Raymond D. Kent(1982), Clinical Phonetics: New York, John Willey & Sons
- Stoel-Gammon Carol and Carla Dunn(1985), Normal and Disordered Phonology on Children, Baltimore: University Park Press
- Weiner, Paul S.(1967), “Auditory Discrimination and Articulation”, Journal of Speech and Hearing Disorder, Vol.32, No.1